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 시상식 개최... 분야별 수상작 50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첫 번째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건축문화진흥연합회 이성열 회장 등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번 수상작은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건축학과 대학교수 및 건축사회 등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50점이 올해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용승인 부문 수상작의 경우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상장을, 건축주에게는 동판을 수여하고, 학생부문과 건축 드로잉·사진부문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건축문화상 수상작들의 작품은 건축문화제가 열리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북자치도 청 1층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공공건축 시설 작품 특별전 및 다양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행사 기간 내내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장쑤성 감찰설계협업협회는 건축문화제 기간에 전북자치도를 방문해서 한·중·일 교류작품전 전시를 관람하고 양국 간의 문화와 기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첫 번째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그리기 및 건축 백일장 대회가 11월 2일 도청 1층에서 개최되고, 도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공증 해소를 위해 건축·건설 상담 코너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한국건축 과정과 역대 건축문화상 수상작들의 영상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건축문화제는 올해로 25회를 맞아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더한 전북다운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 미래의 비

전을 제시해 건축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데 뜻깊은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은 단순한 공간,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종합예술이라고 여긴다"며, "건축문화제를 통해 멋과 쓰임, 문화적이면서 기술적인 건축문화에 도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제10회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 개최

내달 2-3일 남원 혼불문학관 · 구서도역 일원서 진행

남원시 사매면의 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노봉마을을 혼불문학관과 구서도역 일원에서는 제10회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가 11월 2일, 3일 양일간 열린다.

이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매주 개최해 주민 개개인의 분야별 역할을 정하고, 환경 정비 등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오는 등 주민주도형 축제로 치러진다는 데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신행길 축제는 최명희의 장편소설 '혼불' 속 중가역 효일이 서도역을 통해 시집에 들어가는 행렬을 재현하는 남원시를 대표하는 작은마을을 농촌 축제로,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신행을 재현하며 혼례체험, 합팔이, 단자놀이,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구서도역 감성 캠핑, 농촌체험, 작은 영화제 등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해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의 백미는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



는 '효원아씨 신행길 행렬' 프로그램으로, 신랑 신부를 포함해 사매면 주민들 수백명이 혼불문학관부터 구서도역까지 약 2km 거리의 신행길 코스를 직접 걸어가며 소설

속 인물은 물론, 갖가지 혼례 풍속 등 1936년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가을달빛을 배경으로, 문학작품 속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작품에서 묘사된 대로 신행길을 재현하는 만큼 격변기에도 면면히 이어졌던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이번 축제에서 구현되는 장관이 연출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인도 마니푸루대학교, 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K-컬처 세계화를 위해 인도 마니푸루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29일 전당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갖고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국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 공동 추진 △전통문화 관련 학술정보, 학술자료 및 간행물 교류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당에서는 이번 협약을 기념해 7월의 한복을 기증, 인도 현지인들에게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도영 원장은 "인도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인도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인 마니푸루대학교와의 협력이 양국의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에서 만나는 산지직송' 팸투어 참가자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특산물을 활용한 '고창에서 만나는 산지직송' 팸투어 참가자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팸투어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 모로모로 열차, 명사십리 해변길 승마체험, 고창 특산품을 이용한 북분자 음료와, 최근 방영된 '내네 산지직송(고창)'에 소개된 음식점과 선운사 투어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자격은 고창군 외 타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SNS 사용자 이면서 인스타그

램 팔로워 400명, 페이스북 친구 400명, 블로그 이웃 300명, 유튜브 구독자 100명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들에게는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기념품이 들어있는 방문 꾸러미와 고창 특산품인 북분자로 만든 음료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아울러, 투어 후에는 10일 이내 각자의 SNS에 여행 후기를 게시하여야 한다. 모집인원은 36명 이내이며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누리집 열린광장 공지사항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 가람이병기 시·최명희 청년소설 문학상 시상

시 부문 대학부 김원호 · 고등부 김소이 소설 부문 대학부 조하영 · 고등부 문시우



사진 왼쪽부터 최용준 신문방송사 주간, 김소이 학생, 조하영 학생,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문시우 학생, 김원호 학생, 복효근 심사 위원장

지난 28일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제24회 가람이병기청년소설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에 따르면 가람이병기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에서는 「다케레오타이프」를 쓴 김원호(우석대학교 식품생명영양학과 4년) 학생이, 고등 부문에는 「집합 침묵」을 선보인 김소이(수원여자고등학교 1년) 학생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또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아이니」를 쓴 조하영(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년) 학생이, 고등 부문에서는 「우리는 동백을 닮아서」를 쓴 문시우(안양예술고등학교 2년) 학생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당선자에게는 전북대학교 총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총상금이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 이번 문학상에는 202명이 506편을 응모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가람이병기청년소설문학상 심사는 복효근·안준철·장정영·하

기정 위원이,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심사는 최기우·김소운·신이랑·황보운 위원이 맡았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온 영광스런 때에 시상식을 하게 돼 기쁘다"며 "전북대학교가 청년 문학인 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학교의 문화적 자부심인 '이병기' 시인과 '최명희' 소설가의 이름으로 발굴·육성되는 청년들이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고창군, '금토끼 야시장' 성료

'금·토요일 밤의 낭만' 고창군이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과 옛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금토끼 야시장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고창금토끼 야시장은 지역청년과 상인들이 참여해 지난 봄(3월)부터 가을(10월 26일)까지 8개월간 59차례 열렸다.

군은 야시장을 통해 3개월 이상의 매대 운영 수입을 기록하고, 야시장 인접 음식점 편의점 등의 매출 향상까지 고려한다면 5억원 이상의 성과를 올렸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색색의 알전구가 켜진 야시장에선 화덕피자와 장어달걀, 치즈버거, 새싹보리떡볶이 등의 메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됐고, 매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매주 선보이며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다. 특히,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도 상가와 집앞 지루한 공간을 기꺼이 주차장과 매대공간으로 내어줬고, 소음 등의 문제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주며 야시장의 성공을 응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